

buddhanews.com

나오는 대로 근본에 맡긴다면 병 불을 자리 있게는가!

25면에서 계속

를 살해해 달라고 돈을 쥐서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아들이 준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쥐서 살인도 피하고 자식도 죄를 짓지 않게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스님,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무서운 인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이런 게 있지요. 부모자식간에 부모를 두고 일찍 떠나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살다가 그 좀 애원한 복수를 할 양으로 그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일찍 가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부부가 사는데 애를 못 낳아서 참 애를 쓰다가 형제를 낳았어요. 형제를 낳았으니 그 형제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글방을 다니리만큼 컸는데 아, 어느 스님이 문전엘 지나가시면서 시주 좀 하라고 하니깐, 아이구! 우리 아들 풀 있는 것 좀 잘 자라게, 잘 되게 해 달라고 한 바가지 꼭 퍼 가지고 가서 바람에다가 넣으니까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 아들 두 형제는 당신 아들이 아니요. 하나는 깻벌레고 하나는 거미요. 당신이 생전에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그 깻벌레하고 거미를 항상 툰데다가 오줌을 담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난 거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해 보라는 대로 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학교에 보내 놓고, 병아리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촘촘하게 철사라다가 엮어서 이렇게 만든 거요, 그거를 동그렇게 해 놓고 가마뱀기를 둘러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껍질을 피워서 양쪽으로 해 놓고 그리고서는 애들이 올 때쯤 돼서 큰 오지통 독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독 뚜껑을 자기가 덮어 주고 그리고 영감 할머니를 독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독 속에 들어가서는 "엄마 아빠, 배고파!" 이러면서 글방에서 오글방 아무 소리 말아라. 아무 소리 말고 그저 아떡하나 잘 들어 보면 알 것이다. 소리가 안 나고, 지금으로 치면 한 시간 후에나 나와 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하고 있으니까 아, 두 형제가 들어오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고 "밥 줘!" 하고선 아, 그냥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야단법석이거든요. 그 황아리 속에서 참느라고, 아니, 배가 고파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냥 뭐 애절통절하고 있는데 아,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연놈들 어디 갔어? 응,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원수를 못 갚는데." 이거는 어떠한 문제로 이 시간을 알아서 이렇게 피했느냐 이거지. 그냥 삼시사방 쫓아다

니며 찾으면서 "이 연놈들 원수 갚으려고 왔는데, 그래 가지고 이 연놈들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원수를 못 갚는다." 그러면서 뿔뿔 뛰고 그냥 뭐 야단법석이거든요. 이 부모는 소름이 쭉쭉 끼쳐서 가만히 죽는 듯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는 시간도 지나고 원수도 갚을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두어 시간 지난 뒤에 나왔겠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그래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거미들이 그냥 철망에 엉기엉기 붙어서 모두가 죽어 있고, 한쪽에는 우물우물하고 깻벌레가 그 안에서 그리고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시간에 그걸 모면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만 불똥고 늘어지세요. 아셨지요?

더 이상 살생하고 싶지 않아요

스님, 저의 집에 쥐라는 녀석이 자꾸 귀찮게 굴어서 약을 냈더니 그걸 먹고 쥐가 죽었습니다. 근데 불법을 공부한다면 살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생을 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하다가 지렁이를 밟아 죽였다고 한다면 지렁이 무명만 찢을 뿐이지 그에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놓는다면 말입니다. 지렁이가 바로 자기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였으니까 이

살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려 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모습은 밟았으나 그 밟힌 인연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화해서 딱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식들은 소를 한 점을 먹어도 소 한 마리의 무명을 벗겨 줬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귀 뚫인 사람한테 그 한 점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쥐가 날뛰고 그러다 하더라도, 쥐도 영물의 짐승입니다. 무명을 정말 벗겨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쥐를 죽이기 싫으면 죽이기 싫은 대로 "애들이! 아니, 사람 사는 데 들어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항상 감사한 줄 알고, 이게 바로 자연적인 인연입니다. 내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화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마음 한뜻, 바로 한 모습입니다. 한 형상이라 이겁니다.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과 마음이라는 그 자체,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도, 크고 작을 뿐이지 어찌 다르겠습니까? 짐승들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생활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고 생활 자체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사는 거는 아마 때 일만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따라서 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연어도 있듯이 말입니다.

독사라는 그런 짐승도, 독사도 거짓수가 여러 가지다마는, 새끼를 그냥 낳는 것이 있고 알로 낳는 게 있는데, 그냥 낳는 것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자랄 동안 그 어미를 잡아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어미는 그 몸을 헌신 버리듯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독사는 새끼를 낳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낳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무 아래로 푹푹 떨어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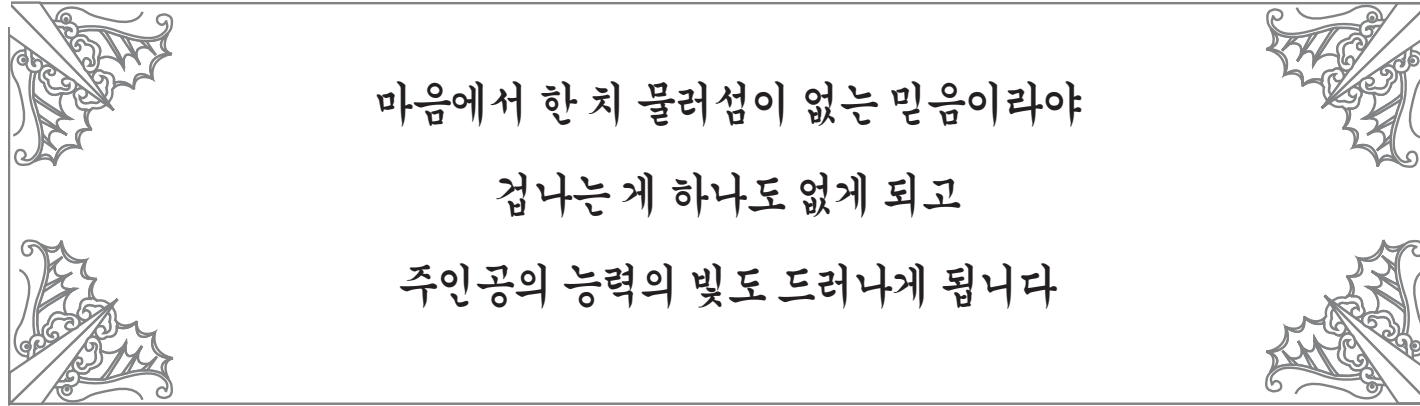
이 모두가, 사람 사는 거나 짐승이 사는 거나 별레가 사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알을 낳아서 최 복에다 매달아 놓는 개미도 있습니다.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 알이 차일까 봐,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거는 아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느 별레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러서 효도하는 걸 보고 이익을 보려고 기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식 잘되는 게 한껏 소원입니다. 아주 조건이 없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것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들어 아납니다.

그래서 아침 첫숨을 할 때도 '오종대는 명심불망'이라고 있습니다. '원차중생 변법계' 모든 이 죽은 세상의 중생들이나 세상의 중생들이나 다 이 종소릴 듣고 깨어나서 이 모든 우주 섭류의 돌아가는 이치를 깨쳐서 알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라 이런 소립니다. 오종대는 명심불망이란 걸 꼭 떼어서 얘깁니다.

은혜를 알아라! 이 국왕의 은혜를 알고 낳아 준 부모들의 은혜를 알고, 지수화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라. 세상만사의 모든 물질의 감사함을 알아라! 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막 쓰고 이러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모르고 불을 막 쓰고 그러면서 불의 감사함을 모르고 바람의 감사함을 몰라서, 공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도 감사함을 몰라요. 이러니 그 모든 것의 은혜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자기 주인공에다가, 항상 그 주인공이 전부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임시키고 거길 진짜로 믿어야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리고 바로 그 깻벌레의 무명과 그 거미의 무명을 벗겨 줘서 다른 데로 천가를 시켜 주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도 그 부모가 가슴을 아파해야 고소하게 생각하게거든요. 가슴을 아파하지 않으면 그냥 푹 떨어져서 에이, 그냥 싱겁죠. 복수를 해야 할 텐데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가면 싱거워서 얼른 자기 갈 곳으로 가 버리죠. 그런데 이거는 아파하고 운통 야단을 하면 아주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업보를 벗어나고 인과응보를 벗어나고 모든 데서 벗어나 수 있다면,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게 부모의 인연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잖습니까. 전자 과거도 있지만 현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서 모든 걸 거기다 놓으면 과거도 현실도 다, 그 얽히고설킨 인연줄이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지금 현실에 소멸되고 현실에 알았기 때문에 미래는 저절로 그냥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 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이죠.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주인공 공부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그런 인연도 다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 오로지 주인공

거는 불쌍해서 아떡하나 하고 돌로 보고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렁이가 또 지렁이가 되게 만들어 놓는 셈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지혜 있으면 그 지렁이도, 지렁이의 마음도 너그럽고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잘될 것을, 내가 구차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지렁이조차도 구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걸리지 마세요, 그것도. 그러면 그 쥐라는 무명을 못 벗어오. 아시겠어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하여튼, 왜 저, 발이 많은 거 리마 있죠? 그게 하나라도 걸리고 겁니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 나도 걸리지 않고 가다가도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걸리지 않고 가는구나." 한다면 그만 못 가고 답니다, 못 가! 그게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정히 날뛰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양단간에 이게 좋은 일이나 하면요, 개도 잘 기르는 것만 안다면 무명을 벗지 못해 가지고 그냥 차 오는 데로 막 뛰어듭니다. 자기 생명이 자꾸 연장이 되면 그 모습을 벗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어쩌다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와서 이렇게 귀찮게 굴면 아떡하느냐? 그 좀, 사람 귀찮게 할 수는 없느냐" 하고 누누이 말해 보세요. 그러면 쥐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나 이 공부라는 것은 어느 지렁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하지 못한 생명이니깐 그냥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모습도 돌이 아닌 내 모습으로 보고 그 자리에 몽땅 다 바 버리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나서 불이 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하다 보니 새삼 불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공기, 물, 바람 등 모든 존재들에 대해 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그 모두가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데 너무나 가까워서 늘 알고 살아가게 되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람의 공기가 없다면 참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고 물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문제는,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복지 행정성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진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입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